

# 조선/기계 Daily

2021. 9.13(월)

조선/기계

Analyst 김현

02-6454-4861

hyun.kim@meritz.co.kr

##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 SIN: 신조선가지수 148p, 중고선가지수 168p

Clarksons에 따르면, 신조선가지수는 148p(+2p, WoW), 중고선가지수는 168p(+1p, WoW)를 기록함. 지난주, Evergreen Marine이 Huangpu Wenchong에 3,000TEU급 11척, 2,300TEU급 11척, 1,800TEU급 2척을 발주함. 납기는 2023-2024년임. (Clarksons)

### Peak season brings records as container lines freeze freight rates

컨테이너 선사들이 3대 주요 항로 운임이 최고치를 달성하며 CMA CGM, Hapag-Lloyd사는 가격 상한제를 도입함. FBX에 따르면 목요일(9일) 기준 일주일 사이 미국-중국 노선 운임이 20,586달러/FEU로 +12% 상승한 바 있음. AP Moller-Maersk는 장기계약 비중을 전체계약 중 60%로 올림. (Tradewinds)

### 'We are not hiding containers': Hapag-Lloyd speaks out on scarcity

Hapag-Lloyd는 컨테이너선사들이 고의적으로 컨테이너를 숨겨 운임을 높이려고 한다는 불만에 해명함. 현재 80%이상의 컨테이너가 사용되고 있다고 언급함. 현재도 평균 17~20%의 컨테이너는 빈 상태로 운행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컨테이너 매입은 어렵다고 설명함. (Tradewinds)

### '컨'선 용선료 최고치

2009년 건조된 4,250TEU급 파나막스 컨테이너선 Synergy Oakland가 2개월 용선료로 20만달러/일에 계약함. Euroseas는 이 선박으로 1,200만~1,700만달러를 벌어들이게 됨. 현재 파나막스 컨테이너선의 1년 용선료는 10만달러/일로 보도됨. (선박뉴스)

### Capesize spot rates see second largest daily increase in over 10 years

평균 Capesize Spot 운임이 하루 +12% 상승하며 10년래 두 번째로 높은 상승폭을 기록함. 금요일(10일) 기준 46,172달러/일을 기록함. (Tradewinds)

### Petrobras postpones major Buzios floater tender to 2022

브라질 Petrobras는 Buzios 심해유전 9번째 FPSO 입찰 마감일을 기준 11월 16일에서 2022년 5월 16일로 연기함. 회사측 설명은 없지만, 업계 관계자는 입찰 관심도가 부족했을 수 있다고 추측함. 현재 Buzios 유전에는 FPSO 4기가 작업 중이라고 보도됨. (Upstream)